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IV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부제: 예수는 스스로 죽으려고 왔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민란을 꾸미고 이 민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 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개역, 마가복음 15:1~20]

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군요. 이쯤에서 일단 중지하고 내년 겨울이나 여름쯤에 또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 얼마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같은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해도 될 만큼 재료가 성경에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구상하기로는 열 두 편정도 하면 어지간히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 그것을 설명할 만한 충분한 재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보면 성경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성경의 저자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빼고 싶은 이야기, 차마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담겨있다는 것은 성경의 기자가 자신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인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한 번 살펴봅시다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도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요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펴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느냐 하고 찾아가면 공부가 제대로 됩니다. 그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위인들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를 표면상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자기 민족의 위대한 점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화도 하고 좀 안 좋은 이야기는 뺄려고 합니다. 일본이 교과서 문제로 이웃나라와 그렇게 시끄러운 이유는 자기들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다고 무리하게 시도하니까 반발이 심한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결코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비굴한 역사, 반역의 역사, 부끄럽기 그지없는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기에 하나

님의 뜻에 부합한 대로 성경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추악한 면들을 도무지 감추려 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좋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표현을 바꾸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으러 온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 땅에 죽으러 온 사람 있어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이 성경이 일반적인 책과 다르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것이 중국 무협지입니다. 중국 무협지나 중국 영화를 보면 대체로 줄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장면은 자기 도장에 다른 파 사람들이 쳐들어 와서 도장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부님도 죽고 사형들도 다 죽죠. 그런데 반드시 한 사람이 살아 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현장에서 살아 남는 사람은 보통 사부님의 딸이더라고요. 사부님의 딸이 살아 남는데 묘하게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장에 없어서 살아 남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통 주인공이 되지요. 간신히 살아 남은 사부님의 딸이 멀리 가 있는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가서 뭘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님과 우리 도장의 사형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미주알 고주알 다 고합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이 주인공이 열심히 수련을 하지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높이뛰기 수련을 할 때 보니까 옥수수를 타넘고 뛰어 다니더라고요. 옥수수를 타넘다 보면 조그마한 옥수수가 자라면서 차츰차츰 높이 뛰게 된다고 옥수수 타넘고 다니는 걸 봤는데 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정권을 단련한다고 불 피워 놓은 술에, 달궈진 자갈 깔던데 그런 곳에 손을 반복해서 찌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원수 갚으러 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마지막 남은 일이 하나 더 있지요. 원수를 다 갚고 난 다음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사부님의 딸하고 결혼하네요. 이게 무협지나 중국영화의 뻔하게 정해진 줄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상세하게 전하면 그 뒷이야기는 반드시 복수로 이어집니다. 줄거리가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시작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복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지 비교해 봅시다.

우선 예수님의 일생을 출생, 성장, 전도여행, 고난 네 가지 정도로 대별하면 성경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전도가 제일 내용이 많아 보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활동만 대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성장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두 구절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도하시면서 3년 동안 다니신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여행은 3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고난은 불과 1주일의 기록입니다. 기간까지 감안해서 비교하면 고난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록 되었을까요? 오늘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느 정도로 바탕에 깔고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는지 정돈을 해 보세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앞의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권은 동일하게 맨 마지막 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의 두 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앞의 한 장은 장래에 대한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28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27, 26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이고 25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4장은 부활, 그 앞의 23, 22장은 고난, 21장은 종말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입니다.

마지막 16장은 여전히 부활한 이후의 이야기이고 그 앞의 두 장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 앞의 한 장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고난의 기록은 두 장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행동까지 포함시키면 분량이 훨씬 늘어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 있습니다. 17장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18, 19장이 고난이고 20, 21장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부활에 관한 것이 끝에 두 장 들어 있습니다. 고난도 2장, 부활도 2장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한 기록이 13장부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찬송들을 분류해 보면 어느 것에 관한 찬송이 제일 많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주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찬송가에서 고난은 1등이 아니고 2등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찬송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예언과 탄생입니다.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고난을 가장 많이 노래합니다. 부활보다도 고난에 대한 찬송이 더 많아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강의 윤곽만이라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장 9절을 봅시다.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 다음 9장 30절로 갑니다.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10장 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했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돌아가셔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죽을 장소를 위해서 가시는 것이지요.

10장 32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도마가 이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갈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마가 조금 반항을 하지요. 무어라고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또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하니까 도마가 뭐라 하면서 따라 왔습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 따라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의 이 장면은 심각하고, 엄숙하고, 비장감을 줍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요? 죽으려고 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은 예루살렘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무엇을 했을까요? 11장과 12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다면 죽기 위해서, 참 표현이 안 좋습니다. 죽을려고 뭐 하는 이야기요?

환장하는...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죽으려고 환장을 해요? 여기에 적합한 표현이 잘 없어요. 죽으려고..., 예수님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이 11장 12장입니다. 왜요? 자기를 죽이려고 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자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도저히 이 사람을 살려두서는 안되겠다고 마음을 굳힙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의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그냥 거기서 장사하는 것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뒤를 봐 주지 않고는 거기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뒤엎었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예수님께서서는 자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도 아주 다양합니다. 대적자들이 아주 골고루 등장합니다.

11장 27절을 봅시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 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심문을 하는데 누구인가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세를 지닌 사람들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싸움을 벌였죠.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누가 왔죠? 바리새인과 헤롯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으려고 대드는 것이지요.

12장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사두개인들까지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소위 권력 있고 뻣 있고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 전원이 예수님께 대항해서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그 당시에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 모두에게 다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 굴에 손을 집어 넣고 독사 약 올리는 거 하고 한 가지입니다.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몰어라 몰어' 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유월절에 잡는 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번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자들이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도 이번 명절에는 말자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라는 자를 죽이긴 죽여야 되지만 저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안되겠다 이번 명절에는 말자. 명절이 끝나고 난 후에 좀 조용해지거든 그때 죽이자. 이것이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이번 유월절에 죽어야 돼." 그래서 죽으려고 악을 쓰는 겁니다. 표현이 영 이상하지만 좌우간 죽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4, 15장 이 두 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4, 15장에 보시면 제자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배신을 하지요? 유다가 배신하지요. 또?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제자들 전원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대표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현장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누가 더 낮고 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잡혀가셔서 심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는 정답이 아닙니다. 합니다도 정답이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조금 낮습니다만 핵심을 잘 찔러야지요. 대답하셔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로 풀려날 만한 대답은 일체 안 하십니다. 반면에 불리한 질문에만 대답하셨습니다. 심문을 할 때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끔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심으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대답하셨습니다.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고소를 했지만 그 증인들의 고소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질문을 해도 이상하다 할 정도로 대답을 안 하였던 그 분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걱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5장 17절입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 왜 자색을 입혔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왕이 입는 옷을 입어라고 놀리느라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얹어 씌우고’** 면류관이 뭐예요? 왕이 특별한 행사 때에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자가 면류관입니다. 네가 왕이지 않느냐 왕다운 모자를 써야지 그래서 면류관을 씌운 겁니다. 뭘로 만들었어요? 가시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예 하여 가로되’** 예절을 차렸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 예절을 차렸습니까? 네가 왕이라니까 내 절을 받으라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일종의 조롱입니다. 그 옆에서 신하처럼 품을 잡은 로마 병사들도 있었을 터이고 배를 두드리며 웃는 병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좀 굵은 매로 쳐야 아플텐데 갈대로 치면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웠으니 갈대로 쳐도 가시가 살을 파고 드는 것입니다. 굳이 굵은 막대기가 필요 없습니다. 가는 갈대로 쳐도 살을 찢는 아픔이 있습니다.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침을 뱉으면 뱉었지 왜 꿇어 절까지 합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20절에서 뭐하고 표현하고 있지요?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희롱을 받으셨던 겁니다. 로마 병사들에게만 이렇게 희롱을 받은 것이 아니고 14장 65절을 보십시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선지자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쳤는지 안 보고 맞추어 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을 마가는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장에 걸쳐서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멸시를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물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물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런 가운데서도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부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므로 나는 맑은 정신으로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잘 못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이해도 안되고 상상도 안되죠. 혹시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사나이답게 호기롭게 큰소리 치고 돌아섰지만 밤잠 못 자고 고민해 보고 고통스러워 해 본 적이 있었던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지, 남녀간의 사랑과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깊은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그 분에게서 잠시라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참으로 악독한 것이 구경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발음이 조금 다르게 들렸나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지르는 비명이었으니까 발음이 이상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를 부르는 모양이다 하기도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이 극심함을 이해하고 해염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좀 도와줄려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야, 야, 그만 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하는가 한번 보자.” 세상에, 사람이 악독해질 수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악독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마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그것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보았으니까 마가복음 전체 16장의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간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그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 드렸던 무협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무협지의 죽음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길로 찾아갔고 안 죽일려고 하는데도 죽으려고 죽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서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협지에서 선생님과 사형들의 죽음을 상세하게 전하는 이유는 오직 원수갚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전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어떻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안 갚았습니까? 안 갚았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제자들이 있나요? 그때 제자들이 갚지 못했던 원수들을 우리라도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진 고난을 겪고 돌아가셨으니 그 원수를 우리라도 갚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 원수를 갚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원수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옛날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뻔한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모여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외치는 복음의 핵심이 뭐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원수 갚자는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나를 열심히 전하고 다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걸 외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한 술 더 뜹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무협지와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와는 도무지 맞추어 볼 수가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다고 열심히 증거했을 뿐 원수 갚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외치고 오히려 이것을 기념하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삼의 피>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 소설인데, 제 기억으로는 박종화씨가 쓴 것 같아요. 하도 오래 전에 본 것이어서 기억이 희미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안타까워하던 임금님에게 어떤 노파가 비단 한 조각을 들고 옵니다. 금삼이란 비단 조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피 묻은 비단 조각을 하나 들고 오는데 이것이 몇 십년이 지났으니 편지 뭉치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람 피인지 돼지 피인지도 알 수 없는 뭔가 거무튀튀하게 묻은 비단 한 조각을 들고 와서 왕의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열이 오른 임금님이 궁중에 피 바람을 몰고 오지요. 누구 얘기입니까? 연산군인지 광해군인지 자꾸 헛갈려요. ‘왕과비’라는 사극드라마가 있던데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거 끝났습니까? 아직 해요?

몇 십년 동안 감춰 놓았던, 비단 한 조각에 거무튀튀하게 묻은 그 피가 모친의 피인지 돼지의 피인지, 무슨 피인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습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친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뻔한 겁니다. 피비린내가 들이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죽었고 이런 아픔을 겪었고... 어떤 이야기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복수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 것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서 죽음의 이야기를 늘어놓고도 전혀 원수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이 도무지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의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죽음이고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었고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섰을 때에 그분은 스스로 죽을 곳을 찾아 가셨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시비를 걸었으며 없는 죄목을 찾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거짓 증거를 내어

놓을 때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그분이 정작 자기에게 불리한 장면에서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스스로 사형 언도를 받아내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가르치셨던 그 분이 바로 친구라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책이다'고 믿고 성경을 보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교육관에서 두 팀이 2시 반에 시작해서 6시에 다 마쳤습니다. 도중에 휴식시간 거의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인도하는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있는 자가 더 받아서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공부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